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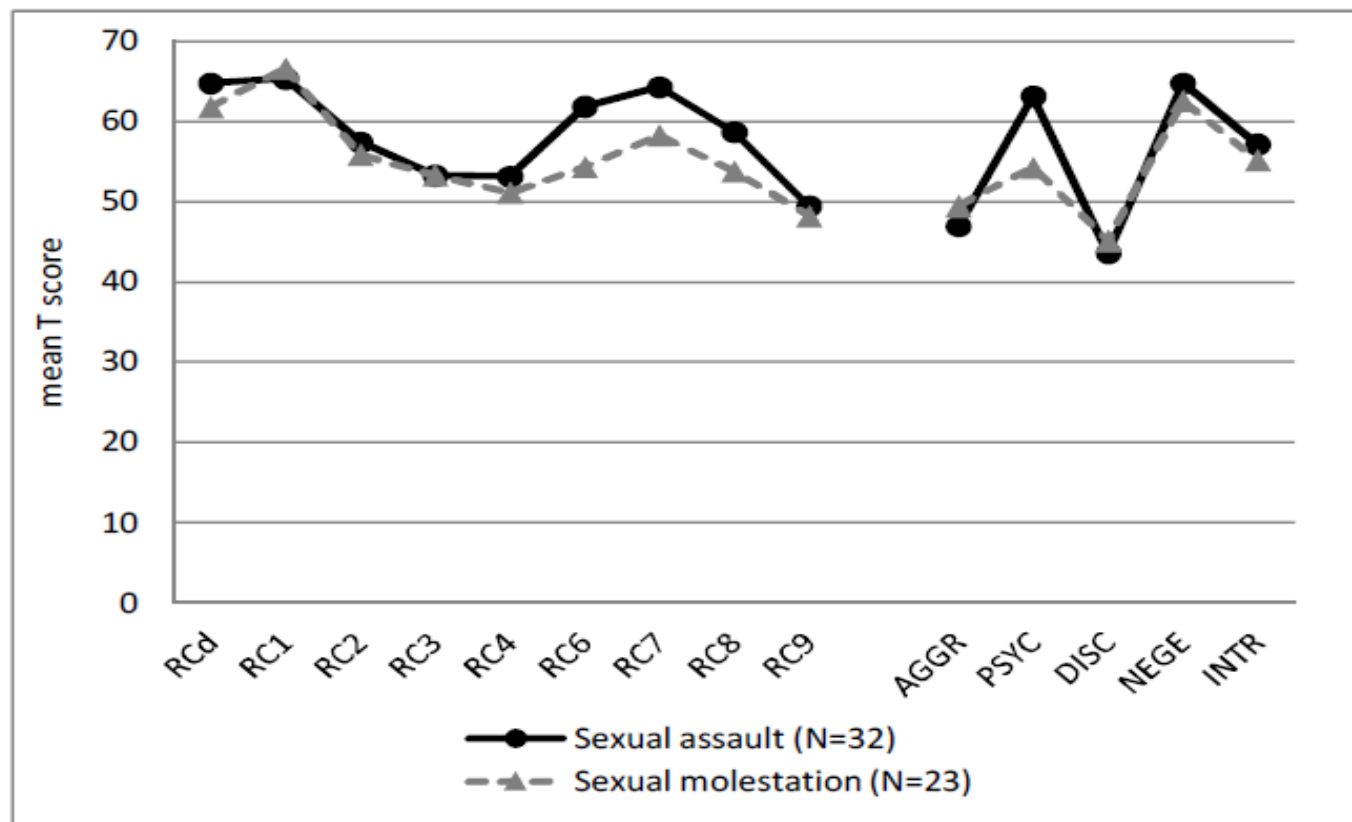
# 디지털 도시화가 페미니즘에 미치는 영향

신경쇠약적 주체와 ‘생물학적 몸’ 이미지의 강박적 반복

- ▶ 성폭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불안, 우울, 자살 사고, 자살 시도 등의 증상을 포함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물질 남용 장애, 불안 장애, 섭식장애 등의 정신과적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들을 통해 보고되었다.
- ▶ Mason F, Lodrick Z.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sexual assault. Best Pract Res Clin Obstet Gynaecol 2013;27:27-37
- ▶ Chen LP, Murad MH, Paras ML, Colbenson KM, Sattler AL, Goranson EN, et al. Sexual abuse and lifetime diagnosis of psychiatric disorders: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Mayo Clin Proc 2010;85:618-629

이상민, <다면적 인성검사 II 척도를 통한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비교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 2017, 21쪽.

Figure 2. Restructured Clinical (RC) scales and Personality Psychopathology Five (PSY-5) scales of MMPI-2 between sexually assaulted group and sexually molested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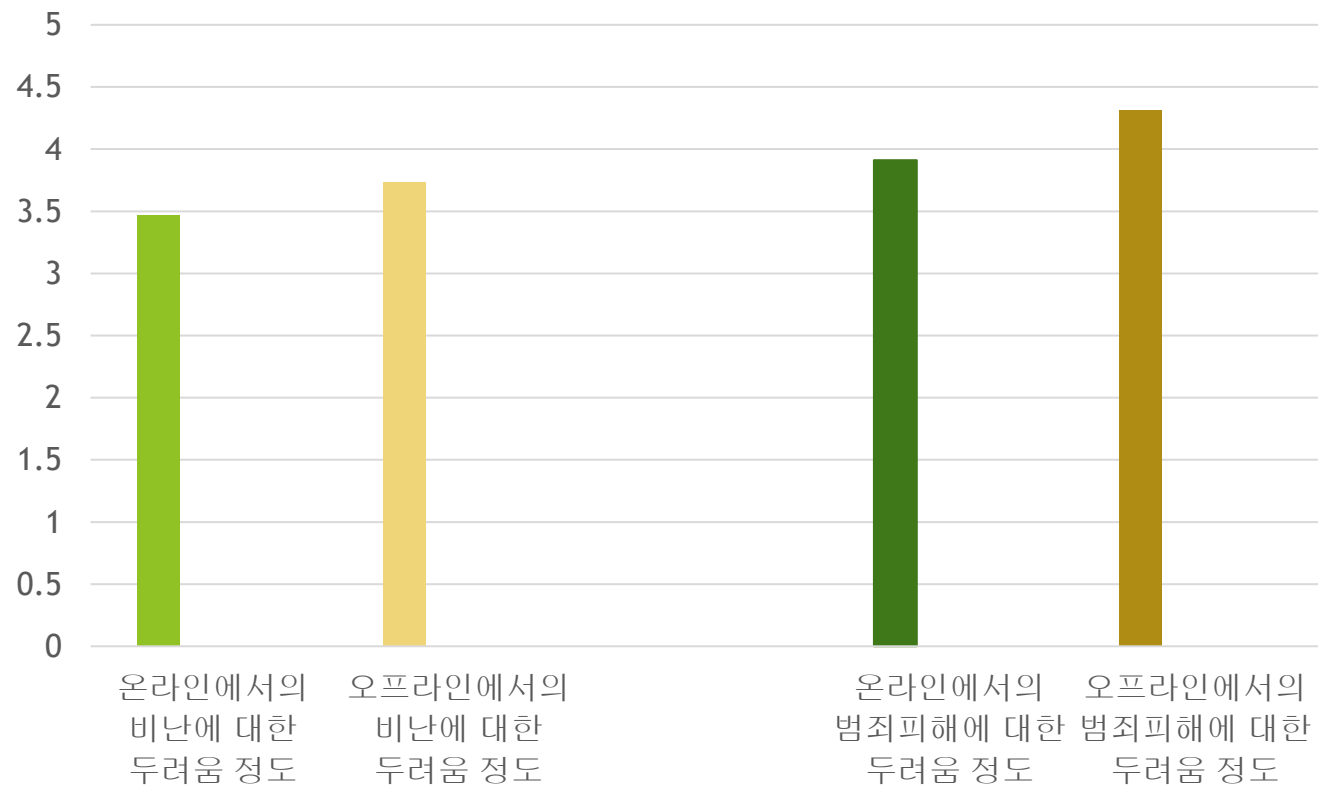


RCd: demoralization, RC1: somatic complaints, RC2: low positive emotions, RC4: cynicism, RC6: ideas of persecution, RC7: dysfunctional negative emotions, RC8: aberrant experiences, RC9: hypomanic activation, AGGR: aggressiveness, PSYC: psychoticism, DISC: disinhibition, NEGE: negative emotionality/neuroticism, INTR: introversion/low positive emotion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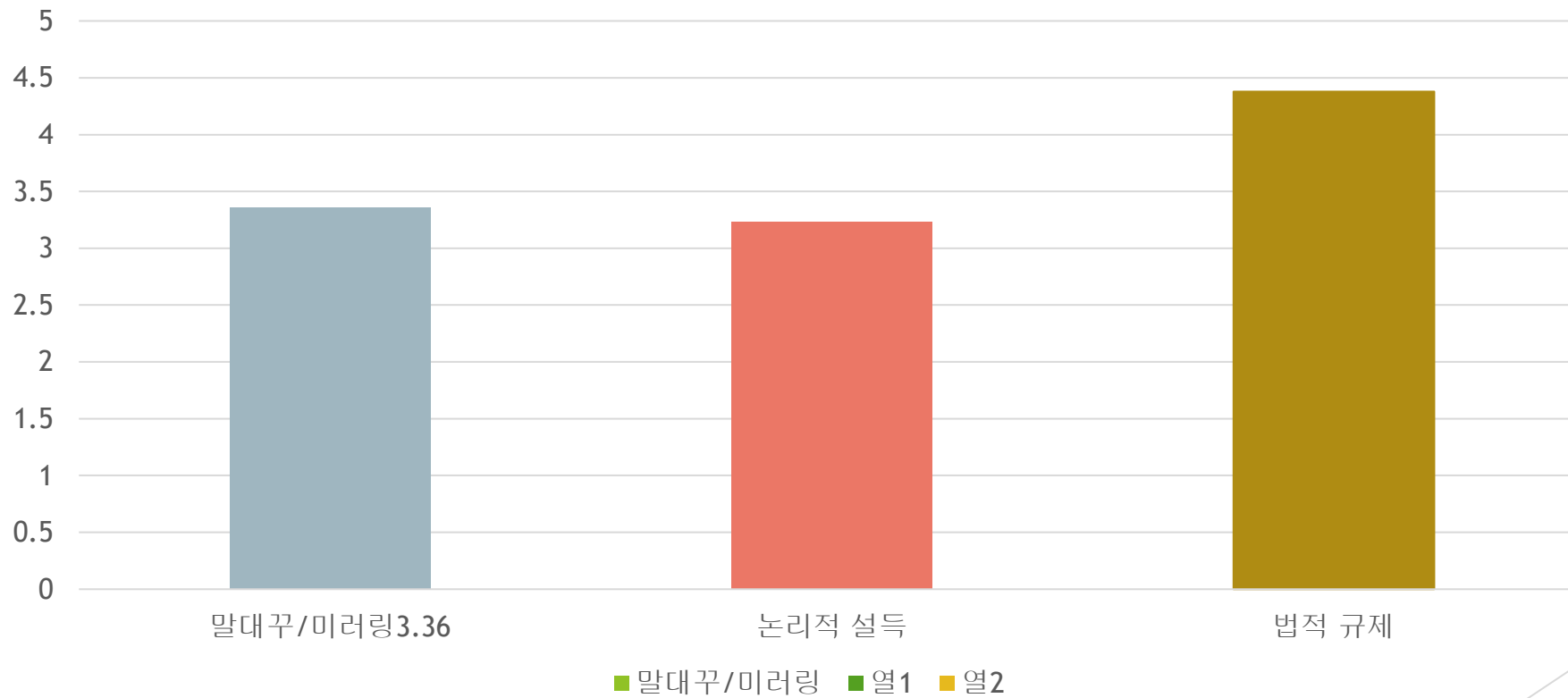
- ▶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성추행 피해자 집단의 MMPI-2 임상 척도 프로파일은 D-Pa 척도의 상승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지만, 성폭행 피해자 집단은 D-Pa-Pt-Sc 척도가 상승한 프로파일을 보였다.
- ▶ 이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과민과 화를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우울과 불안を 보이며 쉽사리 화를 내고 피해 입었다고 느끼며 적대감을 투사하는 경향성을 시사한다.
- ▶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경우 인지와 행동의 심한 와해, 퇴행, 무능과 함께 불쾌함보다는 무기력, 무망감, 무가치한 태도, 자살사고를 표현하며, 때로는 정신증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6)

## 2017년 7월 여성중심인터넷커뮤니티 이용자 조사(112명)

###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여성의 두려움



# 여성대상 사이버 불링 대응 방안



	<i>Dependent variable:</i>
	CvPrevF06
age	-3.639 (3.270)
gender_not_hetero	-5.364 (3.921)
household	1.539 (1.929)
education	1.799 (1.195)
fear_subtract	-4.990** (1.932)
Constant	62.528*** (16.624)
Observations	118
R <sup>2</sup>	0.097
Adjusted R <sup>2</sup>	0.056
Residual Std. Error	20.803 (df = 112)
F Statistic	2.393** (df = 5; 112)
<i>Note:</i>	*p<0.1; **p<0.05; ***p<0.01

	<i>Dependent variable:</i>
	femaledomisogyny_factor1
age	2.128 (2.991)
gender_not_hetero	6.816* (3.587)
household	-1.330 (1.765)
education	-0.918 (1.093)
fear_subtract	3.756** (1.767)
Constant	31.130** (15.205)
Observations	118
R <sup>2</sup>	0.078
Adjusted R <sup>2</sup>	0.037
Residual Std. Error	19.027 (df = 112)
F Statistic	1.889 (df = 5; 112)
<i>Note:</i>	*p<0.1; **p<0.05; ***p<0.01

	<i>Dependent variable:</i>
	cyberevaluation_factor4
age	-0.551 (4.326)
gender_not_hetero	6.982 (5.187)
household	0.759 (2.552)
education	0.125 (1.581)
fear_subtract	6.591** (2.555)
Constant	53.309** (21.989)
Observations	118
R <sup>2</sup>	0.070
Adjusted R <sup>2</sup>	0.029
Residual Std. Error	27.516 (df = 112)
F Statistic	1.691 (df = 5; 112)
<i>Note:</i>	*p<0.1;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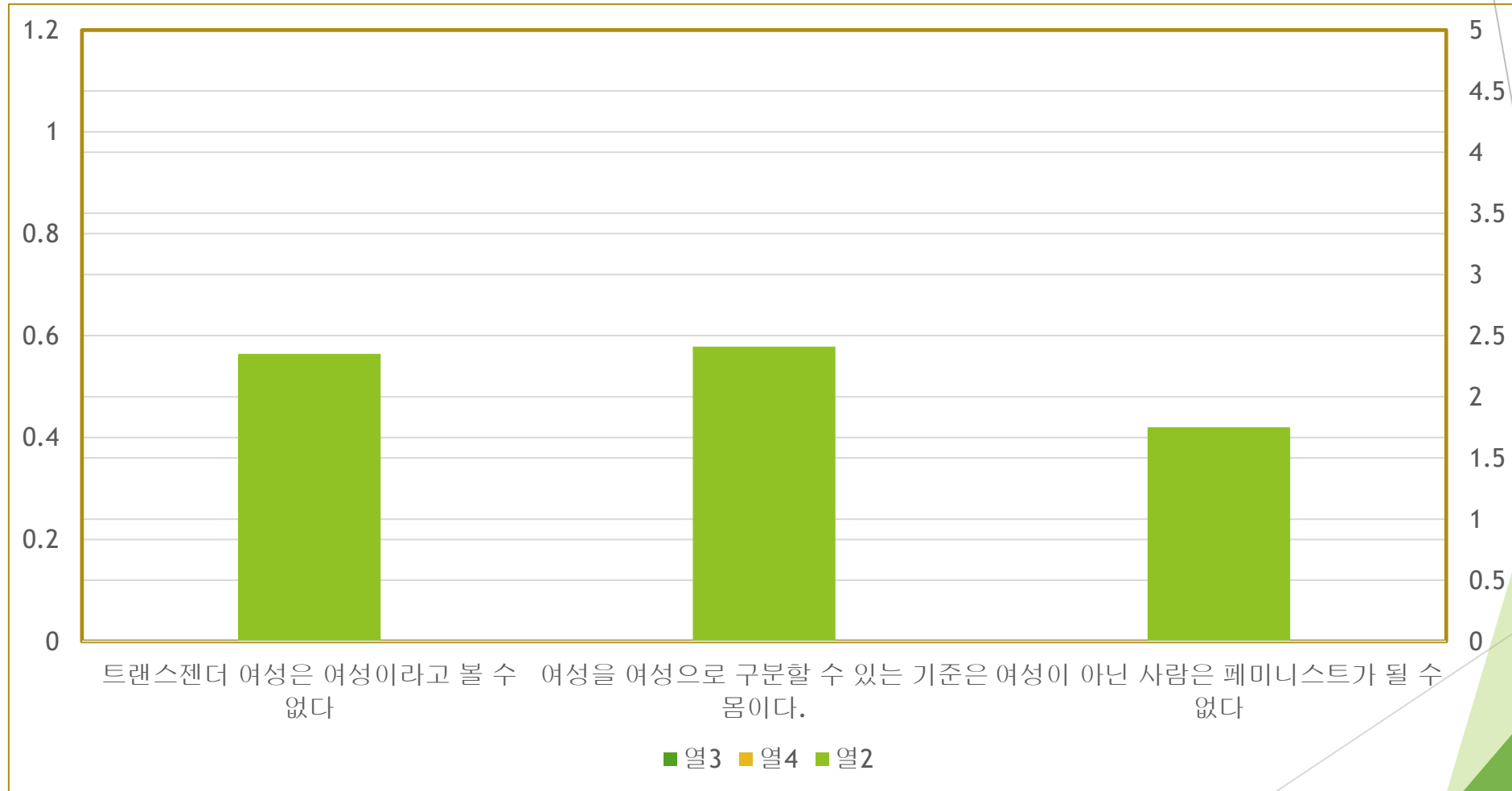
# 연관성

- ▶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체감하는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여성끼리 사용하는 혐오 표현이 문제 없고 재미있다 생각하는 정도는 **3.75점** 높아진다.
- ▶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체감하는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요구 정도는 **4.99점** 낮아진다.
- ▶ 온라인을 오프라인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체감하는 정도가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사이버 공간의 남성 지배성 체감 정도는 **6.59점** 높아진다.

→ 이는 온라인 위협을 과잉체험 할수록 법적 처벌보다 사적 방식의 응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 가능



# 여성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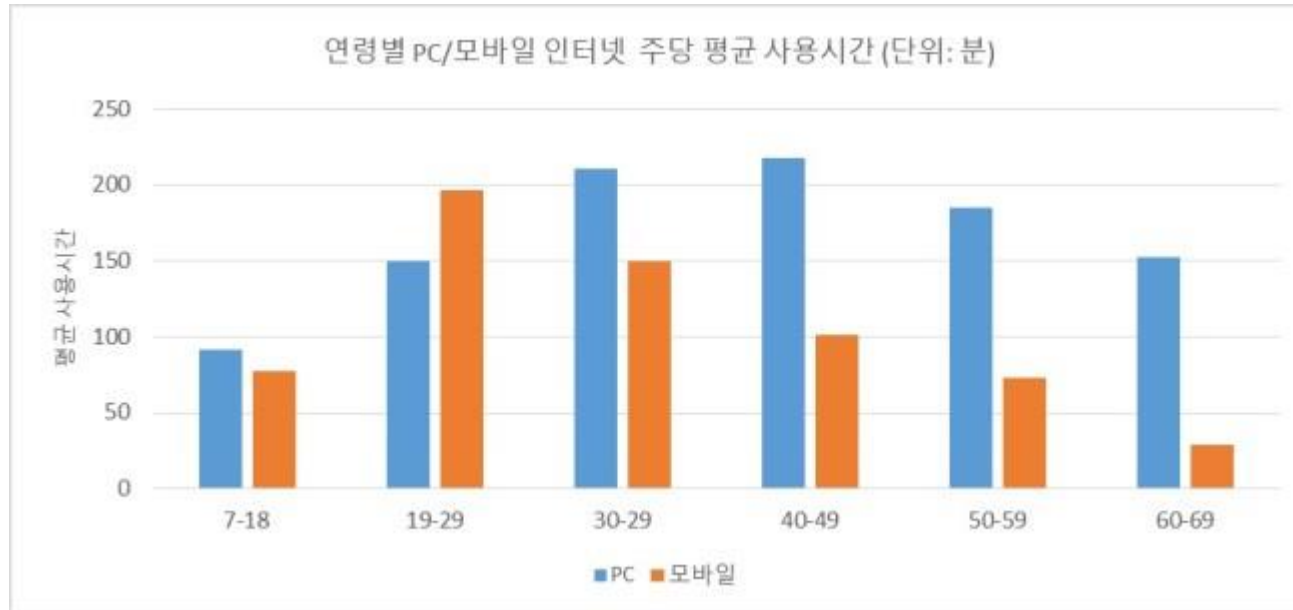
# 코로나 19와 ▶ 비대면의 시대

## 2016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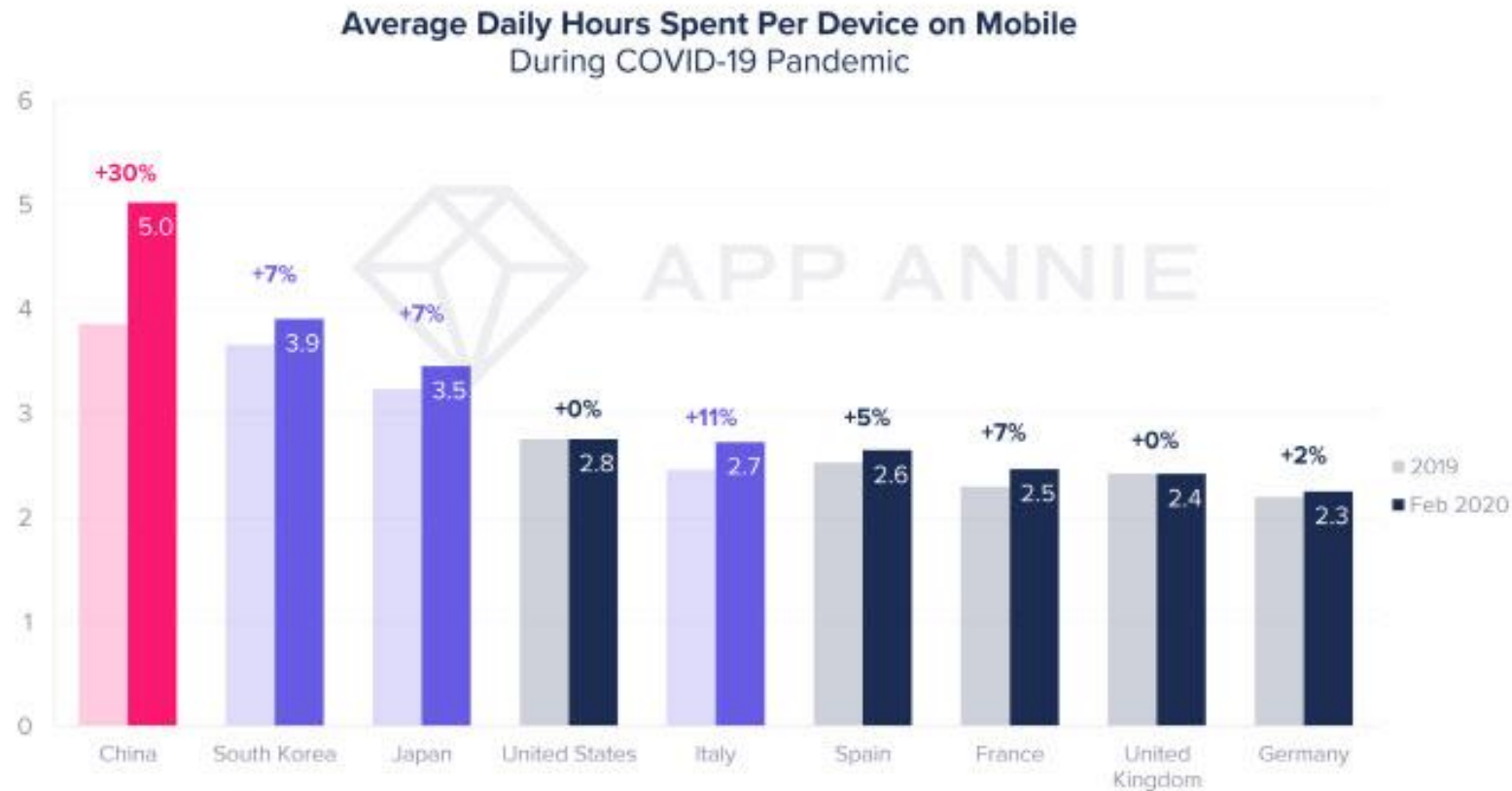
미래창조과학부가 만 3세 이상 국민 6만1238명(2만5000가구)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인터넷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은 10대와 20대가 모두 100%, 30대가 99.8%, 40대가 99.4%로 10~40대는 대부분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16 인터넷 사용시간 기준연령별



- ▶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2016년 6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6090명(7~6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인터넷 사용시간 기준 연령별 PC/모바일 활용행태 결과’

## 앱애니, 코로나19에 ‘모바일 앱’ 전 세계 사용시간 폭증



1<sup>st</sup> Phase of Countries Impacted at Scale  
2<sup>nd</sup> Phase of Countries Impacted at Scale  
3<sup>rd</sup> Phase of Countries Impacted at Scale

Note: Android phones

# 온라인 강의에 대한 긍정적 평가



2020. 04



코로나19로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도입한 가운데 학생의 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운대, 서울과학기술대학, 중앙대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설문 결과 강의만족도가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광운대 학생의 온라인 강의 만족도는 80%에 달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를 지속하고 싶다는 의견도 높았다.

2020. 06



# ▶ 디지털 도시화

# 디지털도시화: 영토적 와해

현대 메트로폴리스는 지도로 나타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극한을, 그 경계와 범위와 한계를” 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Chambers, 1990:53)

도시는 “실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상상된 그리고 가상화된(simulated) 현실”(soja, 2019:31)이 되어가고 있다.



# 디지털 도시화

- ▶ “우리는 무엇이 ‘실재’이고 무엇이 ‘상상’된 것인지 말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완전히 새로운 사이버 세상이 ‘가상현실’, ‘인공지능’, ‘디지털 커뮤니티’로부터 창출되고 있다.”(Soja, 2019:309)
- ▶ “하이퍼리얼리티”: “실재 세계와 가능 세계들의 논리적 구분은 확실히 그 기반이 약화되었다.”(Eco, 1986:14)
- ▶ “사회가 생산과 과잉생산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이를 벗어나는 실재의 부활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대의 ‘물적’ 생산은 그 자체로 하이퍼리얼이 된다.”(44)

# 사이버시티

- ▶ “컴퓨터 그물망의 상상계적 매트릭스”(M. Christine Boyer, 1996: 14)
- ▶ Hyper-connectivity, 혼잡성
- ▶ 누구나 접속하기만 하면 도시적인 문화(the urban), 도시적인 삶의 양식에 접합
- ▶ 사이버공간은 중심이 없는 거대한 메갈로폴리스
  
- ▶ 물리적 세계로서의 도시에서 “상상적 실재세계”로서의 도시로
- ▶ 비신체적 평면 시각적 이미지 관계들의 집중

# 코로나와 비대면의 시대: 비신체적 관계들

- ▶ 1, 2차 사회적 관계를 모두 사이버 공간에서 수행, 즉 1, 2차 관계도 3차의 사회적 관계에서 처럼 전화나 통신 등 간접적 관계와 접촉에 기초를 두는 사회관계.
- ▶ 친밀관계도 비대면- 가족 격리, SNS 등
- ▶ 경제적, 기능적 관계도 비대면- 재택 근무, 배달, 온라인 쇼핑
- ▶ “비대면적, 비신체적 관계들”(마크, 고트디너, 2013: 23): 루이스 워스가 도시의 특성이라고 생각했던 비인격적 도시 생활의 문화



# ▶ 사이버그의 탄생

# 디지털 도시화와 사이보그의 탄생

- ▶ 스마트폰은 나의 뇌이고 다리이며 사회관계다
- ▶ 해러웨이는 이러한 인간+기계 혼종을 ‘사이보그’로 명명한 바 있다. 사이보그는 인간의 육체가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상상되고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즉 나는 내가 접속하는 디지털 기술과 더불어 나의 신체와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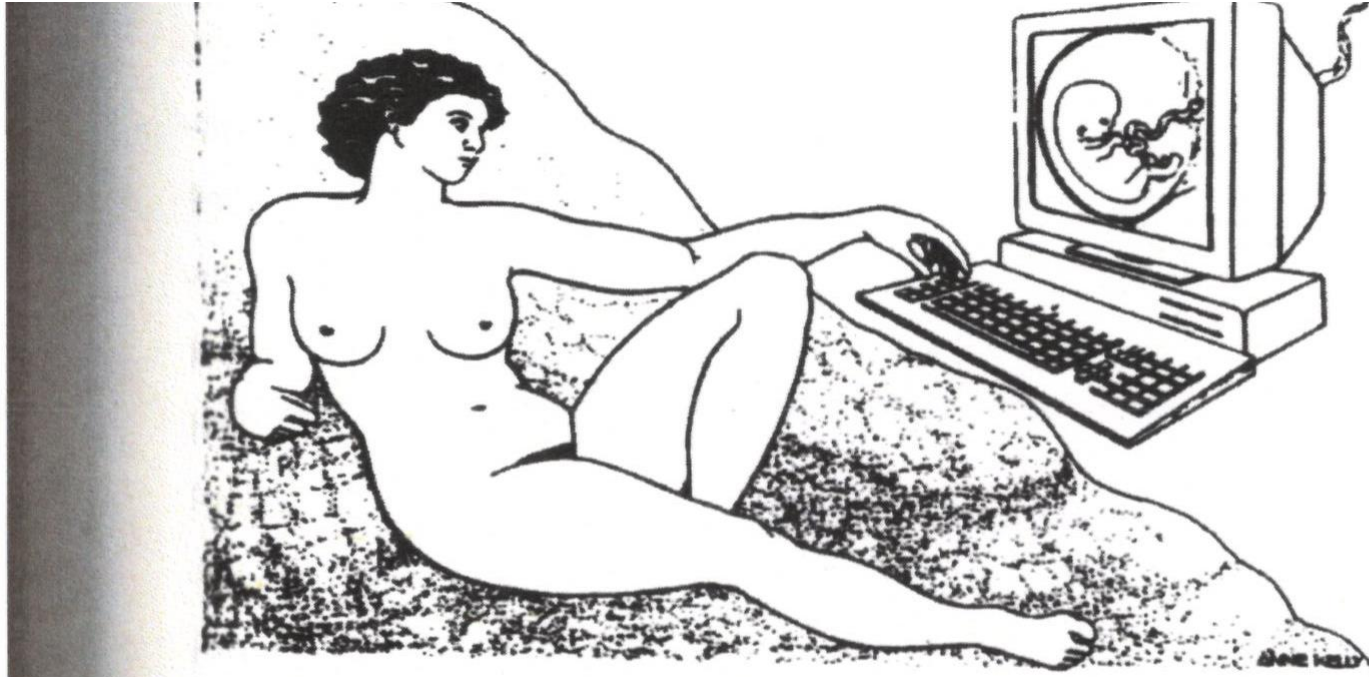


그림 5.1 노르웨이의 페미니즘 잡지, NYTT OM KVINNEFORSKNING 제3호, 1992.

## 비신체적 관계

앤 켈리, “버추얼 검경”

# 사이보그의 자아와 몸

- ▶ 그물망 내의 위치와 영역 이미지가 자아, 기억, 경험, 역사를 대체
- ▶ 컴퓨터모니터의 지형학이 타자와 우리의 즉각적 언어와 시각 이미지 제공
- ▶ 이미지나 이모티콘으로의 환원 또는 탈구(dislocation)
- ▶ 촉각적 몸(접촉)-> 시각적 몸(거리)
- ▶ 비신체적 관계->hyper-connectivity-> 신체와 환경의 경계 해체



# ▶ 신경쇠약증

# 도시적 불안감: 신경쇠약증 (psychasthenia):

딱딱한 물질성의 증발, 초점의 상실, 도시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몸의 외부는 존재하지 않는다.(Soja, 2019:32)

육체와 도시 둘 다의 자기-인식과 정체성은 “컴퓨터 화면과 비디오 모니터의 지형”에 점점 더 깊이 얽혀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데에 필요한 언어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17)

“신경쇠약증은 자아와 주변 영역 간 관계의 교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유기체의 몸의 좌표가 정의하는 공간이 재현된 공간과 혼동되는 상태를 말한다. 신경쇠약증에 걸린 유기체는 자기의 몸의 경계를 구별할 수 없어서 자신을 둘러싼 심연의 바다 속에서 길을 잃고, 자신 너머의 공간을 포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다.  
”(Olalquiaga, 1992: 1-2)-> 불안

자아와 환경이 융합되는 것에 대응하는 유기체의 기술(5)

# 신경쇠약

- ▶ Psychasthenia is a psychological disorder characterized by phobias, obsessions, compulsions, or excessive anxiety
- ▶ 신체를 잃는 것에 대한 공포, 집착, 강박, 불안, 공격, 신경과민
- ▶ 아파니시스: “주체소멸의 불안”(우승호, 38)
- ▶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원더랜드에서 중력을 잃듯이 시뮬레이션의 세계에서 육체적 정체성의 감각을 잃게 된다.(올랄퀴아가, 3)



# ▶ 강박적 도시문화

#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

- ▶ 몸의 상실을 받아들이면서 유비쿼터스적 자아에 만족
- ▶ 모든 것이 상실되었다며 우울증에 빠짐. 또는 냉소주의
- ▶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몸의 경계를 강박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

# 몸의 경계를 강박적으로 유지하려는 태도

- ▶ 신경쇠약과 강박적 도시문화: 몸과 마음, 자기감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몸이 파편화될 것 같은 혼동에 대한 공포를 이겨 내기 위해서 이질성을 혐오하거나 기계적 강박적 집착적으로 경계확인과 고정을 반복하는 도시문화
- ▶ 요새도시(소자), 도시상상계의 통제(소자), 음식과 상품의 소비(올랄퀴아가), 거울방의 무한 재생산과 이미지의 강박적 반복 (올랄퀴아가)

# 1.요새도시: 자발적/비자발적 바리케이트

- ▶ 불안과 공포에 맞서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경계긋기
- ▶ 복지에서 치안으로
- ▶ 공포의 대상은? : 비-인간적인 것(비체), 빈곤층
- ▶ “보안 강박적 도시문화“(Davis, 1990): “불법화된 빈곤층과 싸우는 테러의 장소”(223)

# 폐쇄적 인터넷 커뮤니티

- ▶ “에티켓과 무례함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정반대의 수단이다. 그 목적은 타인과의 접촉이 너무 격해질 우려가 있을 때 접촉을 피하도록 돕는 것이다.”(투안)

## 청소

- ▶ 혐오표현을 통한 배제-공격적 방어
- ▶ 치안이나 가입 자격조건을 강화하여 안전성 확보-수동적 방어



# 남성성 불안-> 공격misogyny->남초 커뮤니티

## 4대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단위: 건, 디시인사이드·일베저장소·오늘의 유머 등 3대 대형사이트 분석(2016년)



자료: 아르스 프락시아

# 성폭력 공포->미러링(공격적 방어) 치안의 여성공간(수동적 방어)



## 여성공간사수 래디컬 X 총궐기

위아 정치에 대한 페미니즘의 반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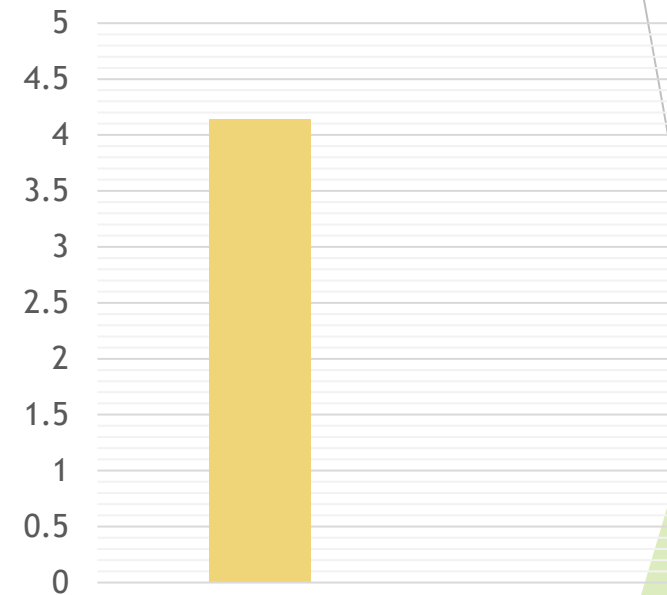
참가지역 — 래디컬 페미니스트  
일시 — 2020.03.14(토) 오후 2시 ~ 5시  
장소 — 논현1문화센터(서울) 5층 다목적 대강당  
주최 — 래디컬 X 전국대학래디컬페미니스트연대  
참가비 — 5000원

모두발언

국지혜 래디컬스 대표  
박혜영 (여성권리선언) 한국연락처  
유혜영 (말하는 래디컬) 번역가  
강영서 이화여대생주연단 Rad-X 대표  
김민준 속방아래 트랜스젠더리플 대표  
TF팀 부대표



- 남성가해 관료요서의 위아 정치 분석
- 여성공간을 파괴하는 트랜스젠더리즘의 작동 원리
- 법적 근거 없는 차별연령 관련 규범 및 대응 방안
- 자해문화 규범과 비윤리적 의료 행위 비판
- 해외 운동 사례 공유 및 연대 방안 모색



여성중심인터넷커뮤니티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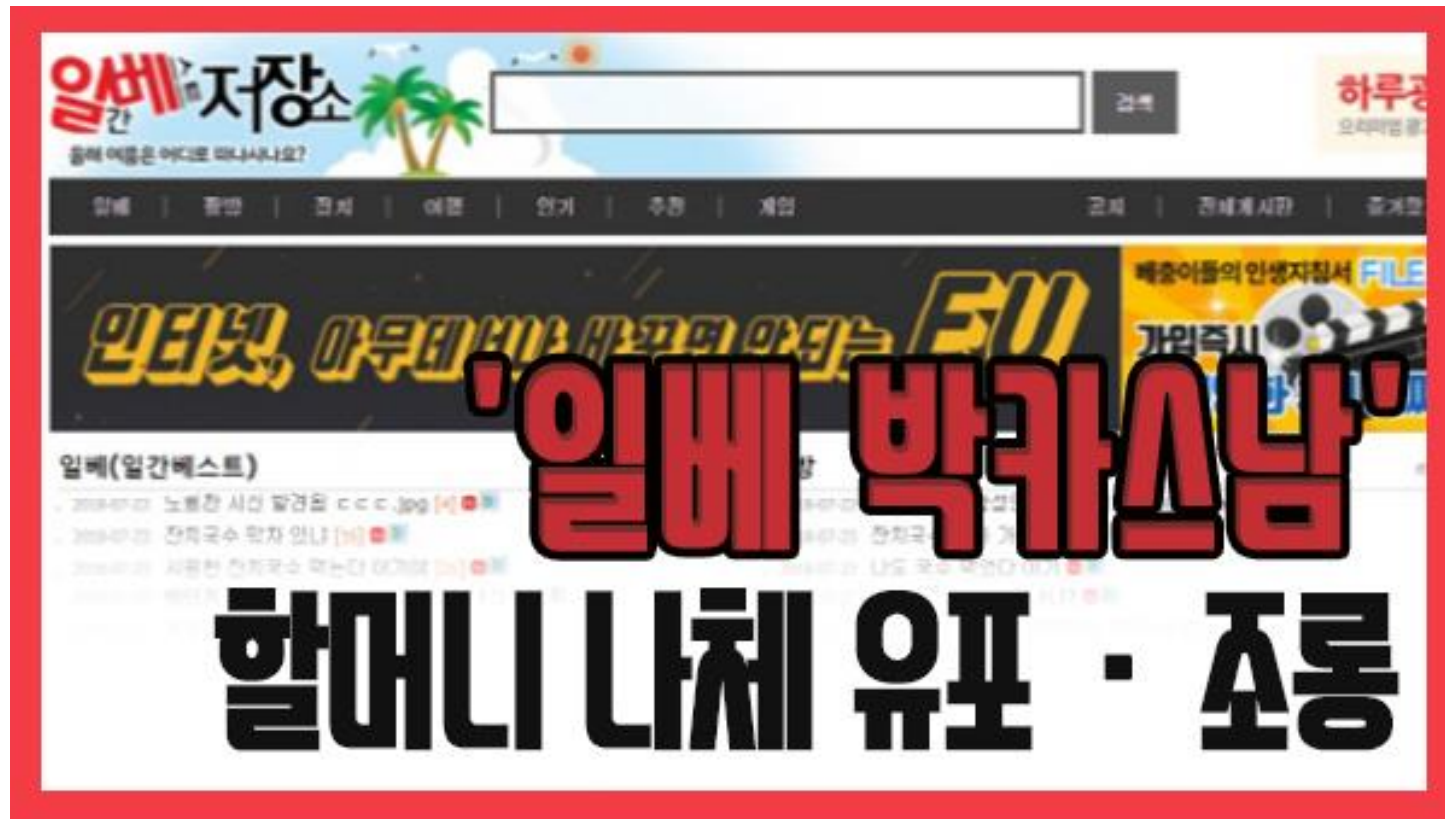
■ 계열 1 ■ 열1 ■ 열2

- ▶ “타자로부터의 폭력은 자신에게 결여를 남긴다.”(우승호, 70)
- ▶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경험은 주체성의 파괴 경험. 주체소멸의 불안
- ▶ 미러링: “욕망을 욕망”하기 위해서 타자를 대상화. 증오, 공격적 방어
- ▶ 탈코르셋:또는 타자의 대상이 되기 않기 위해 죽은 척하기, 자신의 무능력을 욕망
- ▶ 타자가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한, 그 타자는 결핍, 따라서 그와의 완전한 향유는 불가능

## 2.도시 상상계(the urban imag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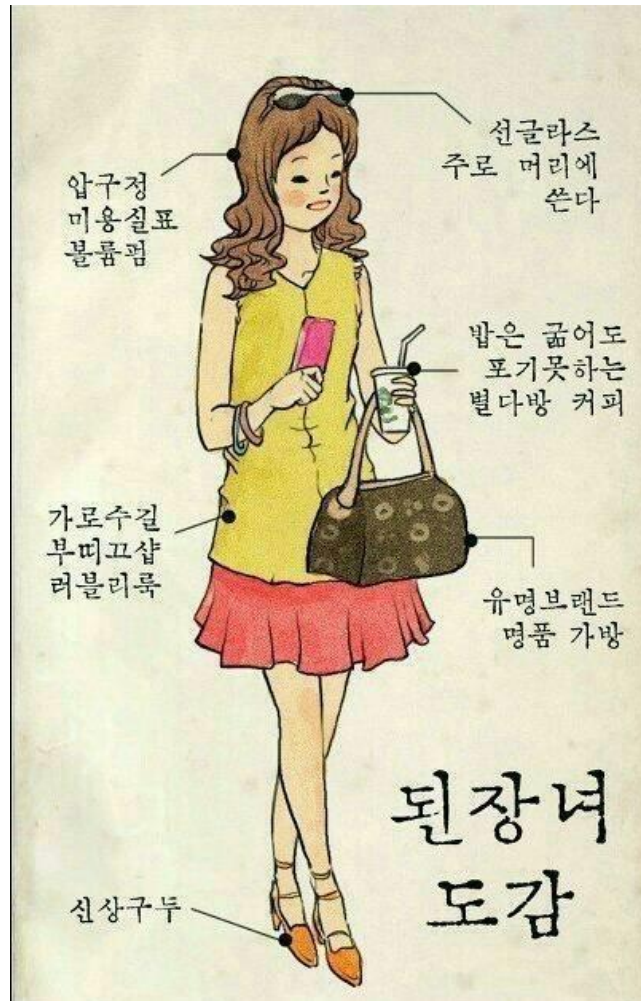
- ▶ “공간적 규제 형식”(307): “도시현실에 대한 정신적 또는 인지적 지도 그리기를 의미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 공간, 공동체에서 생각하고, 경험하고, 평가하고, 결정하는 행동에 필요한 해석의 기준을 의미한다.”(soja, 2019:308)
- ▶ “도시 생활에 대한 시민 의식과 대중 이미지를 조작하는 이 규제형식은 문자 그대로 혹은 비유적으로 ‘정신을 가지고 노는’ 방식”(308)
- ▶ 전체감을 획득시키는 자아 이미지(거울, 기술적 이미지)을 통해 강력한 붕괴의 힘 앞에서도 결속을 유지(올랄키아가, 4)
- ▶ 실재(유기체, 지시체)에서 시물레이션(이미지)로, 상징계에서 상상계로(the verbal by the visual)
- ▶ 이데올로기적 도시 상상계의 반복 순환을 통한 규제

노년 여성과 성매매 이후 여성의 얼굴이 드러난 나체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글이 삭제됐지만 여성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이 여러 차례 작성-> 남성성, 주체성의 상상계적 유지를 위해 여성 대상화





##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통한 남성성 유지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 생물학적 여성

#불편한 용기

음식 (공개)  
카페지기 **홍대**  
회원수 **48,538**  
방문수 **1,837**  
카페업수 **263** [프로필](#)

▼ 내 정보

**카페 가입하기**

검색이 허용된 게시글 입니다.

[글쓰기](#) [답글](#)

[최신목록](#) | [목록](#) | [▲윗글](#) | [▼아랫글](#)

본 시위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합니다. | 공지

카페지기 | 조회 4952 | 추천 1 | 2018.05.13 19:15

- 본 시위에는 생물학적 여성만 참여가능합니다
1.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과 관련한 의견은 피드백하지 않겠습니다
  2. 시위의 주체가 여성이 되어야 하기 위함입니다. 본 시위는 사회에 만연한 여성 대상 몰카 범죄와, 같은 몰카지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에 대한 분노로 일어난 시위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난번 강남역 시위 당시 정장남, 넥슨 시위 당시 남성참가자로 인한 분란 등과 같은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3. 그 외에 지지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역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위가 첫 시위이고 흥공인 만큼 위의 문제에 대한 운영진과 시위참여 여성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 '생물학적 여성'에 대한 더이상의 피드백은 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고 게시판
- ※시위 홍보 인증 게시판※

- 공지
- 문의 25시

- 인기글
- 자유 게시판
- 초상권 침해 신고

- 불편한 뉴스
- 불편한 스튜디오

☕️ 댓글이 달리면 카페앱에서 바로 알려드려요! [설치하기](#)

# 여성에 의한 ‘생물학적 여성의 몸’ 이미지 순환

- ✓ 여성을 생물학적 몸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근대 가부장제의 어휘가 아닌가?
- ✓ 왜 여성 역시 경계의 강화를 주장하는가? 왜 스스로 ‘몸’이 되는가?
- ✓ 생물학으로 얻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것은 확실한 신체의 경계, 경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침범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 ✓ 고통 당하는 신체, 침범 당하는 몸 강조하고자.
- ✓ 그러나 뚜렷한 경계를 갖는 몸은 존재하는가?



### 3. 소비

- ▶ 먹는 것과 상품의 소비를 통해 몸의 감각을 최대화함으로써 구체성 확인(올랄키아가)
- ▶ 타인과의 접촉 불가능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접촉을 통한 몸의 확인
- ▶ 그러나 소비 역시 시각화: 먹방, ASMR. 홈쇼핑



- ▶ 인간이 소외된 생산과 소비, 촉각의 소외

## 4. 포르노그래피

- ▶ 올랄키아가에 따르면 포르노그래피 역시 감각의 부재와 결핍을 만족시키는 이미지의 강압적 반복
- ▶ 내가 대상화되지 않으면서 시각의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적 실천
- ▶ 포르노그래피는 지시물이 소멸되는 환경에서의 쾌락: 포르노그래피에서 보이는 대상과 보는 사람 간의 차이는 소멸한다. 둘 다 시물라크르
- ▶ 몸 없는 섹스, 즉 포르노그래피는 몸이 그 지시성을 잃은 것에서 살아남으려는 투쟁 (올랄키아가, 7)
- ▶ 몸이 사라질 때 몸은 그 자취를 통해 상상계적으로 재구성됨.
- ▶ 시뮬레이션의 강박적 반복
- ▶ 반복적 관음을 통한 시각의 일방향화
- ▶ 몸과 욕망의 궁극적 분열

# 몰카(mo-ka):불법동영상의 소비

- ▶ 불법촬영물(몰카)->온라인 플랫폼->경찰의 단속->삭제대행업체 등장->순환



- ▶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이미지 착취**
- ▶ **이윤을 넘어 감각의 부재와 결핍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미지의 강압적 반복**
- ▶ **몸이 그 지시성을 잃은 것으로부터 살아남으려는 시도**

# 몸 없는 섹스에서 살아남기

- ▶ 기술적으로 매개된 '생물학적 여성' 이미지의 소비를 통한 시각적 정복
- ▶ 신체 없는 섹스(일방적 대상화)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성의 전략
  - 역전된 시각 정복 : 미러링으로서의 몰카
  - 경계긋기: XX염색체 (XY염색체), 보지, 가슴, 포궁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계를 공고하게 함

## 5. 기술의 부정

- ▶ 자연으로서의 유기체를 구하기 위해 실험과 아기, 인공수정, 낙태 등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



- ▶ 순수한 자연으로서의 몸은?

# 사이버 정치

우리는 모두 전체성에 대한 환상을 자극하는  
도시적 상상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 사이버 정치의 방향:

- ▶ 소자: 창조적 저항과 전복이 되도록 위반의 공간적 실천, 경계 넘나들기 시도.  
가령 아이콘적 급진주의는 아이콘을 사용하되 이를 패러디적으로 사용
- ▶ 올랄퀴아가: 차이와의 평화로운 상호작용(18)
- ▶ 해러웨이: 기술은 보수화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새로운 실천을 가능하게 하기도 함.
- 컴퓨터 아나키즘<->가상 사회운동
- 강화된 이데올로기적 통제<-> 반-위계, 다-중심적, 개방적 민주적 공동체



# 1.전체성(통일성)의 일방적 시각적 상상을 반복하기보다 만지면서 만져지는 몸의 경험 촉진

- ▶ 신체성 상실의 공포 속에 이를 위장할 또 다른 통일적 전체의 환상적 이미지를 도입하기보다 나의 신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
- ▶ 이를 위해서는 평면적 원거리 시각에 기반한 몸이 아닌 근거리 촉각에 기반한 몸의 경험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 ▶ 접촉의 상태에서 몸은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인식됨. 이럴 때 비로소 한쪽을 대상화시키지 않는 평등한 관계 가능

## 2. 실재이자 이미지인 뫼비우스의 띠로서의 몸

- ▶ 성차는 전존재론적으로 존재하면서 동시에 구성된다.

### 3. 안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

- ▶ 도시 상상계에 의해 구성된 나의 정체성으로 인해 여성은 억압받거나 대상화될 수 있음. 침범되거나 파편화될 수 있음.
- ▶ 안전을 위해 치안의 공간을 만들거나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욕망을 욕망하는 주체가 되는 자신에게 존재하는 결핍을 은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 타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일은 결국 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
- ▶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차이와의 상호작용속에서 나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함

# 정리

디지털 도시화와 함께 마주하게 된 ‘몸’의 상실과  
정신쇠약적 주체의 등장 분석

정신쇠약적 주체가 어떻게 사회적 통제와 종속을  
낳는 강박적 도시문화를 생산하게 되는지 분석

1. 요새도시 2. 도시 상상계 3. 소비 4. 포르노그래피  
5. 자연으로의 회귀

페미니즘 저항 또한 강박적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수 있음을 주장

기술·정보화, 디지털 도시화의 시대에 페미니즘이  
어떻게 창조적 정치운동을 이끌 수 있는지 모색